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세계성찬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9. 거룩 거룩 거룩 .....	다함께
----------------	-------------------	-----

♠ 공동기도 .....	다함께
--------------	-----

자비하신 하나님, 10월의 첫 주일 아침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외로워하고, 사랑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파했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과 부드러움, 돌봄과 자비를 원하지만, 내적인 어둠과 공허함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열정과 감정 그리고 느낌들 속에 오시어 주님을 모신 자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분주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까지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우리의 영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	호10:12 .....	인도자
----------------	--------------	-----

♠ 교 독 문 .....	54. 성례식 .....	다함께
---------------	---------------	-----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	---------------------	-----

대표기도 .....	I. 이혜명 선생 II. 장영숙 전도사
------------	-----------------------

응 답 송 .....	성가대
-------------	-----

찬 송 .....	278. 사랑하는 주님 앞에 .....	다함께
-----------	-----------------------	-----

성경봉독 .....	I. 요23:1-17 .....	인도자
------------	-------------------	-----

II. 요6:32-35 .....	김재영 집사
--------------------	--------

찬 양 .....	성가대
-----------	-----

말 씬 .....	I. 오직 주가 아시나니 .....	최인환 전도사
-----------	---------------------	---------

II.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	김기석 목 사
------------------------	---------

성 찬 식 .....	집례자
-------------	-----

헌신의 찬송 .....	267. 주 날 불러 이르소서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6. 성자의 귀한 몸(4)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와 더불어 걷는 이들에게 허락된 내적인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자유로운 움직임 앞에 마음을 열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제4남선교회 주최예배	10월 기도의 밤
말씀 : 김재흥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지호 선생 조병무 장로	인도자 임정자 권사

<b>10월</b>	영접위원	한완식 김용진 조문규 이순정 최영혜 박혜경
	헌금위원	한상익 김중수 하현철 유영남 이기분 최숙화

## 돼지의 맑은 두 눈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 그런데 우리의 지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문에도 같은 점과 다른 점, 통일성과 다양성이 들어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문은 모두 삼위일체의 도장이요, 한 분이요,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 즉 끝없는 다양성이요 또한 다양성 속의 단일성이신 하나님의 도장이다.

세상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듯이, 전자(電子)로부터 은하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도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이다.

완전히 똑같이 맑은 두 마리의 애벌레가 없듯이 똑같은 두 개의 원자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보이는 밤하늘의 별 가운데 똑같이 맑은 별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이며, 문학 특히 시의 기능은 삼라만상의 표지인 이러한 통일성, 이러한 보편적 형태를 발견하는 일이다. 시는 사물들이 나타내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보여주는 것이니, 시에서는 산들이 수양처럼 뛰고, 언덕이 어린양처럼 뛰놀며, 당신의 머리털은 갈라하드 산맥 속을 헤매는 염소를 닮는다.

맑은 달밤에 울어대는 개구리와 귀뚜라미들의 합창, 많은 목소리들, 짐승들의 높고 낮은 울음소리들—멀리서 들리는 닭 울음, 암소의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를 비롯한 농장에서 들리는 모든 다른 신비로운 소리들—이런 모든 것은 수도자들이 합창으로 바치는 매일 매일의 거룩한 예식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서로 다른 언어로 부르는 찬미가요 기도이다.

새들은 노래를 부름으로써 성부께 일용할 양식을 요청하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새들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밖의 다른 짐승들은 각기 제나름대로 주의 기도를 바치고 있다.

모든 예술품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는 별들도 또한 그렇다. 따라서 모든 진정한 예술품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기도이다. 그리고 예술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특별히 종교적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예술은 근본에 있어 종교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삼라만상 가운데, 심지어 돼지의 맑은 두 눈에 서도 드러난다.

모든 것은 본질상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니, 폐결핵 환자의 침도 카리브해의 맑은 바닷물만큼 깨끗하다(제노아의 카타리나 성녀가 병자의 상처에서 흐르는 고름을 빨았던 것이나 성 루이스 대왕이 문둥병자의 헌테에 입을 맞췄던 것도 다 이런 까닭에서다). 두루미나 벌레들이나 깨끗하고 순결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물질은 투명하고 성스러우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생겨난 때문이다. 오직 죄만을 빼고는 모든 것은 순결하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순결하다. 풍경은 순결하다. 타락한 인간의 혼란스러운 욕망과 욕구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짐승은 순결하다. 자만심이나 욕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성인군자가 될 때, 즉 혼란스러운 욕망과 욕구, 자만심과 욕정을 모두 끊어버렸을 때, 그의 평온한 영혼은 숲처럼, 호수처럼, 벌레나 두루미처럼 순결해진다.

한 마리의 짐승 또는 한 그루의 나무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곧 하나님의 본질 자체,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그분의 본질이니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며,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말을 모자람이나 지나침이 없이 명명백백히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의 말씀이다. 모든 물건은 완전한 복종의 표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자신 속에서 뚜렷이 드러낸다. 예언자 바룩(Baruch,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로 예레미야의 제자)의 말대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생물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사람의 욕신도 또한 성스럽고 거룩하고 죄를 모른다. 그러므로 욕망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없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무한한 순결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증인으로, 마음내키지 않는 공모자로, 우리 죄의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하나님의 존재는 삼라만상 안에 들어 있는 까닭이다.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억압하는 일이다.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확대하는 일이다. 저주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업신여기는 사람이며 따라서 스스로에게 커다란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다.

—에르네스토 까르테날, <<침묵 속에 떠오르는 소리>> 중에서

## ■ 마/음/으/로/읽/는/글

# 바뀔 수 있다

푸짐하게 디저트를 내오면, 배가 불러도  
물리는 일이 거의 없다.  
남들이 곁에 있을 때에는 경건하게 예배드린다.  
몇 시간씩 앉아도 있다. 그러나  
혼자서 기도할 때면 잠시 허리 숙였다가  
쩍싸게 일어난다. 일어나는 길로  
비어 있는 식도(食道)를 채우러 달려간다.

그러나, 이런 품성(品性)이 바뀔 수 있다!  
땅 속 물이 뿌리 타고 올라가 나무로 되고  
풀잎이 짐승 만나 짐승 되듯이  
사람 또한 무거운 육신(肉身) 배낭 내려놓고  
빛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마트나비 몰라비 루니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박시내	김인걸	문영혜	안종일	정현주	김준호	곽혜자
고사일	최영선	임승동	백혜숙	이광용	한형인	조문규	진정숙	김용원
윤정덕	구성실	김중수	이순정	박성수	김애경	최종원	김정길	최숙화
정완수	김재광	김용길	최영혜	박정숙	김윤수	박옥경	김혜권	박영희
이유선	방극숙	안정숙	김종훈	안경숙	고광승	이춘희	홍순구	안홍숙
왕성환	강순배	염혜영	임보람	이혜인				

###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윤성종	김윤정	정미경	이동천	왕수명	김남중	오복순
황원순	박준희	이기분	황자순	이정은	박정석	고숙이	서정순	전영자
이희균	김영한	이호원	권혁순	박혜경	박병희	박미영		

### 감사헌금:

최숙화 김정길 신윤정 김순복 왕성환 강순배 박금희 이호원 최주환  
문복순 이혜인 나오미선교회

생일감사헌금: 박정오 김재흥 김종구 이순정 조윤숙 김경민

구도헌금: 김기석 장영숙 장혜숙 하현철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홍순덕	연 합 수 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이건화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원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안정숙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김춘려	
시온	박효선	허정윤	이인섭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교회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오복순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이명희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정현주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혜권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야외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최영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세계성찬주일** : 오늘은 전 세계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정성스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2. **오후집회** : 제4남선교회 주최예배로 드립니다.
3.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4. **기도의 밤** : 5일(수) 저녁 7시 30분에 10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5. **연합속회** : 10월 7일(금)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안디옥 속 식사준비 - 예루살렘 속
6. **녹색구매교육** :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주최하는 <기독교여성을 위한 녹색구매 교육> 이 10월 4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우리교회에서 열립니다.
7. **봉사** : 종묘 급식 봉사가 5일(수) 오전 11시 15분부터,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가 7일(금) 오후 12시 30분부터 실시됩니다.
8. **별세** : 방현복 장로님께서 지난 27일(화) 별세하시어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9. **신앙실천** : 은혜 받는 집회에 꼭 참석하십시오. 몸이 멀어지면 영혼의 잠은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 식당 봉사 : 가버나움 속

\* 식사 대접 : 방문성 장로님 덕

\* 헌화 : 정두리 권사 (남편 백유현 성도 2주기)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